

“1980년 광주의 비극,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돼, 힌츠페터 기자의 5.18취재정신 이어가야”

2022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성공적 개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현장에서 취재, 보도한 국내외 수상자들 한 자리에

지난 1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취재한 언론인들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상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와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후원하는 ‘2022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경쟁부문 대상인 ‘기묘에 선 세 계상’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의 모습을 담은 영국의 프리랜서 영상기자 필립 콕스에게 돌아갔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크리스토퍼 들루아르)는 콕스 기자의 ‘수단의 스파이더맨’에 대해 “수단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수단 시민들의 열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시위현장의 위험함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상과 다양한 영상장치를 사용해 스파이더맨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영상미, 그리고,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높은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립 콕스 기자는 시상식에서 “수단에서도 주부, 학생,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80년 광주에서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날의 힌츠페터처럼 필름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인권 문제는 홍콩,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있었던 취재정신을 이어가는 일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 부문은 탈레반 재집권으로 혼돈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을 취재한 와타나베 타쿠야 일본 TBS 기자가 받았다. 와타나베 기자는 아프

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인 2021년 8월, 일본 언론 최초로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을 직접 인터뷰했다. 또, 탈레반이 통치를 시작한 뒤 수도 카불과 바미안 지역을 찾아가 식량 부족과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상황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담았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생긴 지 2년 만에 한국인 수상자도 나왔다. 특히 부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 시민들의 삶을 담은 한국의 독립저널리스트 윤재완 PD가 이름을 올렸다. 윤 P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도네츠크 지역으로 향했다. 윤 PD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68일을 보내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선에서의 68일>에 담았다. KBS 전인태·김동렬 PD는 윤 PD의 영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현장 취재를 한 윤 PD는 “저널리스트로서 약자의 삶을 취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크라이나 등 여권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곳이 많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가 왜 세계 저널리스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려운 현장을 취재하고 싶다.”고 밝혔다.

비경쟁부문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고(故) 쉬린 아부 아클레 기자와 마지디 베누라 기자에게 돌아갔다.

아클레 기자는 지난 5월 11일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다 이스라엘 군의 총격에 사망한 알 자지라 소속 기자다. 베누라 기자는 알 자지라에서 아클레 기자와 24년 동안 현장을 함께한 영상기자로, 아클레 기자의 마지막 현장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2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기묘에 선 세 계상 수상자 영국의필립콕스 영상기자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받고있다.

심사위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현장에서 진실을 알리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고귀한 아부 아클레 기자와 마지디 베누라 영상기자와 같은 언론인들을 추모·격려하고, 총격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어 진실의 현장으로 나서는 전 세계의 언론인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두 사람을 올해 ‘오월광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국제 공모에 들어가 7월 21일부터 8월 10일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했고, 8월13일부터 25일까지 8편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CNN, 일본 TBS, 호주 ABC, 싱가포르 CNA, 영국 더가디언(The Guardian), 독일 DW, 글로벌보라인

보도채널 VICE NEWS 등의 해외 언론사를 비롯해 KBS, SBS 등 국내 방송사 영상기자들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자신이 취재·보도한 뉴스와 기록보도 작품들을 출품했다.

심사위원회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의 주재로 20명의 저명한 영상기자, 저널리스트, 언론학자, 전문가들이 토론과 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심사위원장은 “2022년 출품작의 다양성과 뛰어난 작품성에 진심으로 놀랐다.”며 “출품작들이 다룬 주제가 무엇이든 영상보도 하나하나가 평화정의 인권을 엄격하게 존중하는 것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립적인 보도 없이 인권의 법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저널리즘이 없는 세상은 책임감이 없으며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자율으로서 부당하게 착취당할 곳”이라며 “언론 자유는 다른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거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미화 1만 달러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서울과 광주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며, 지난해 첫 시상식이 서울에서 열린 데 이어, 작수해인 올해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필립 콕스, 윤재완 독립PD, 마지디 베누라 등 수상자와, 코로나19에 감염돼 불참하게 된 수상자를 대신해 참석한 오타 히로유키 일본TBS 뉴스편성센터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원순석 전 영사기자협회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욱 기자 cat1006@naver.com

‘대통령 비속어 논란’ 국내외에서 언론자유 퇴행 우려

“취재영상 왜곡 없다- 보도의 자유 침해우려”

대통령실 출입영상기자단,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 발생한 비속어발언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고, 대통령실과 여권이 오하려,이를 보도한 140여개 언론사중 MBC를 폭 집어 보도경위를 묻고,이에 대한 고발과 항의, 압수수색에고 이어지면서서 대통령비속어 논란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국제적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관련기사3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당시 윤 대통령을 동행취재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 촬영했고, MBC가 첫 보도를 내보낸 데 이어 KBS, SBS, YTN 등 140여개 국내 언론사들도 잇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당 영상의 내용을 인정한 직후 취재진에게 보도 자체를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해당 영상에 대한 왜곡과 지막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실은 뒤늦게 사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와 야당으로부터도 사과·요구를 받아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영상기자들은 같은 달 26일 기자단 명의의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 짜깁기도 없었다.”며 “해당 발언이 가진 문제점과 잇단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국민들의 혼란과 실망에 대한제대 시정방안이 서울에서 열린 데 이어, 작수해인 올해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한 영상기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조선일보 등이 비속어 영상을 민주당에 준 사람이 MBC 영상기자이고, 마친 그 기자가 민주당과 짜고 이번 사안을 주도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 영상자들이 분노했다.”며 “이것은 영상기자가 소속한 언론사가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 영상기자 직종 자체에 관한 문제라는 데에 영상기자들이 동

의했고, 기자단 명의의 입장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도 27일 지지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야기한 참모진들을 개편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치·외교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길 바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온 논란의 책임을 엉뚱하게 언론으로 돌렸다.”며 “매일매일 책임을 전가할 새로운 희생양과 정치적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영상기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언론사들에게 보장된 취재·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유’를 외쳐온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서만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질의서를 보냈고, 이종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MBC를 검찰 고발했다.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기관장들에게 해당 보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MBC를 방문해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한편,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외교·인보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은 지난 29일 윤석열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대통령실이 MBC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유언종허 연설에서 자유를 외치거나 언급하고,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대통령실측이 부자연스러운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도쿄신문의 아이사카 서울지국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력자가, 권력기관이 그렇게 여당이 다른 방법으로 방식으로 반론해야하는데, 고발하거나 그것은 협박이잖아요.”라는 입장을 언급했다.

(3면에 계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제106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평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담은 영상보도들 수상

장마·태풍 등 주요 현장 이슈 출품작 없었던 건 ‘아쉬움’

서 태 경 2022 영상기자상심사위원장

이번 106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출품작에 KBS와 MBN을 제외하고 수도권방송사 출품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최강의 장마로 인해 비 피해가 크다는 뉴스가 특보로 연일 보도됐는데도, 조속 60미터의 강력한 태풍으로 피해가 상당했다는데도, 관련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상 취재의 분업, 제보 영상의 뛰어난 현장성과 고화질의 화면이 그 이유로 이해가 되지만 그 시기 가장 핫한 뉴스가 출품작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뉴스 현장의 이슈를 취재, 전달하는 것이 영상기자의 중요한 존재이유이기에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부문별 수상작입니다.

지역뉴스 탐사기획 보도부문에서 G1 강원민방의 원종찬·하정우 기자가 취재한 ‘천연동굴, 갈 길을 묻다!’가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 동굴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영상으로 잘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단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의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이였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작품의 흐름과 상관없는 리포터의 잦은 스탠드 업으로 영상 취재 화면이 끊기는 듯한 시청자의 눈을 거슬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제·통일 보도부문입니다.

KBS의 이재섭·류재현 기자의 <시사 기획 창 - 전쟁과 음악>을 수상작으로 선정 했습니다.

한국인 임윤찬이 우승한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를 조명했지만, 취재진은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의 수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들의 경쟁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중인 두 나라의 연주자들은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잘 표현하였습다.

모짜르트 작품을 배경으로 연주자의 심리와 전쟁의 참혹함을, 클래식 음악과 시사 프로를 대비시키듯 집목했습니다. 영상 화면을 위해 드론, 미니어쳐 촬영, 보케 필터 사용 등으로 최대 효과를 냈습니다. ‘전쟁’과 ‘음악’이라는 이질적인 관념을 영상으로 시각화한 시도였습니다. 음악과 영상의 콜라보, 보면서 듣는 효과로 인해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환경 보도부문에 KBS 홍성백·송혜성 두 기자가 출품한 <시사기획 창 -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를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꽤 오랫동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단골 소재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심각성은 익숙한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막연하고 남달처럼 곁들 때도 있습니다.

지역뉴스 탐사기획보도부문 수상자 소감

강원도 천연동굴 관리 실태 고발...문화재청·지자체 후속 대책 끌어내

G1방송 보도국 영상기자 원종찬

아이들과 여름방학 때마다 찾아갔던 강원도 동굴들.. 취재하기 전까지 이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취재기자의 기획 취재로 시작을 하면서 다른 언론 매체에서 국내 동굴 관리와 운영 방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도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기획보도 이후 문화재청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동굴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보도에서 지적한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침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의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 및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침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오염이 심각한 동굴은 폐쇄하거나 관람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굴 관리자들이 동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대기환경 측정기가 고장 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수치만 받아 적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자치단체 동굴 책임자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오염이 심각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와 영월 고씨굴은 내년에 환경 모니터링 영역을 실시해 녹색오염 제거를 위한 상시 관리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며,

삼척시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환선굴과 대금굴에 발생한 녹색 오염을 제거하고, 현재 개장 시간 내내 커지도록 설치돼 있는 조명을 전부 센서형으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보도에서 지적한 환선굴의 훼손된 시설물은 보도가 나간 이후 즉시 삼척시에서 정비 작업을 벌여 개선했습니다.

본 기획 보도는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의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제정한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또 보도 이후 삼척시가 녹색 오염 제거와 조명 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도 언론의 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천연기념물인 천연 동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자치단체들이 동굴 보존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도 판단합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 권위의 동굴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 인터뷰하고 스튜디오에 출연시킴으로써 앞으로 동굴의 관리와 관람 방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메시지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국제·통일보도부문 수상자 소감

전쟁 중인 러-우 피아니스트 입상, 임윤찬 우승 ‘기적’같은 취재

KBS 류재현

결혼 3일 전 카카오톡 알람이 울렸다. 출장 공지를 알리는 메시지였다. 전쟁과 음악 그리고 이재섭, 정연옥. 공지를 다 읽기도 전에 지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욕심이 났지만 같이 가게 될 선배들 이름을 보니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바로 예비신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꼭 가고 싶은 출장이 생겨서 지원해볼게”. 막상 지원은 했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출발일이 신혼여행 복귀 후 5일 뒤였기 때문이다. 결혼하자마자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우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출장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됐다. 여러 우려 속에 나는 운이 좋게도(?) 출장을 가게 됐다.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 없었던 출장들이 몰리면서 장비 수급이 어려웠다. 콩쿠르 특성상 예약이 많은 취재라 멀티캠 운용이 반드시 필요했다. 드론을 제외하고 총 8대의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8대 모두 다른 기종이었다. 장비 선정부터 절망적이었지만 후반 작업을 믿기로 했다. 출발 며칠 전 벤 클라이번 재단 측에서 기존에 허가했던 콩쿠르 내부 촬영 불가 통보를 전하기도 했다. 사전 구성안이 틀어지면서 출장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컸다.

미국 포트워스에서 열린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는 한국인 4명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출신 드미트로 초니, 러시아 피아니스트 안나 케니쉬네 등 3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 때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들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면서 마치 ‘음악을 통한 대리전’처럼 클래식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단순한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이들의 순수한 음악적 경쟁 과정을 통해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러-우 전쟁이 음악계 전반에 미친 영향, 전쟁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했다.

본선 1라운드가 시작되고 참가자들만큼이나 우리도 긴장했다. 참가자들이 경연에서 탈락하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사라질 위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말 기적적으로 우크라이나 참가자 드미트로 초니가 3등, 러시아 참가자 안나 케니쉬네가 2등, 한국의 임윤찬이 1등을 차지했고 우리의 기획 의도를 잘 살려낼 수 있었다.

이번 취재에서 영상기자로서 프로그램 주제의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선배와 끊임없이 고민했다. 한 시간 가량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중간 중간 영상 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미니어쳐 촬영, 초고속 촬영, 타임랩스, 짐벌, 드론, 멀티캠(최대 8대까지 사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동원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재섭 선배가 ‘보케 필터’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여 주제의식을 시각화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이번 출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적’이다. 정말 운이 좋았던 취재였다. 초니(우크라이나 참가자)가 탈락하지 않은 것도 러시아 피아니스트와 나란히 입상한 것도 임윤찬의 우승으로 클래식 관심이 높아진 것도 모두 우리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참가자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간 이재섭, 정연옥 선배와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의 김진영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환경보도부문 수상소감

빙하 녹아 갯벌로 변한 덕슨 피오르 ‘충격’...기후변화 생각해보는 계기되길

KBS 보도영상국 송혜성

4년간 영상기자로서 북극에 다녀온 건 큰 행운이다. 언젠가는 극지방 취재를 가보겠다 소망해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내 인생에 다시 있을까 싶은 이벤트였고, 2분 이내 리포트를 제작하는 데일리 영상취재만 담당하다 50분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제작은 처음이라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5월 중순, 같은 팀 홍성백 선배를 사수로 나를 부사수로 하는 북극 취재진이 정해졌다. 7월 출발 전까지는 북극 방문을 위한 극지연구소 필수 교육을 듣고 국내 북극 연구자들을 만나는 인터뷰 일정이 이어졌다. 틈틈이 현장 취재에 참고가 될 만한 다큐멘터리와 보도물을 챙겨보며 출장을 준비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7월 10일 밤, 예습(?)기간이 길었던 탓인지 설레기보단 후련한 마음이었다.

기후 변화의 현장을 가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그린란드, 캐나다와 러시아, 알래스카의 북쪽 지역 등을 포괄해 ‘북극권’이라고 한다(한편에 남극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대륙이다. 우리팀이 다녀온 북극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다. 주요 취재 포인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노르덴스키올드 빙하와 발렌베르그 빙하. 빙하가 녹아 갯벌로 변한 덕슨 피오르, 극지 과학자들이 있는 북극다산기지 그리고 세상 최북단 마을이라 불리는 롱이버비엔이었다.

노르덴스키올드 빙하는 거대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서부터 빙벽이 보였는데 그러고서도 20분 정도를 더 가셔야 배가 멈췄다. 빙벽이 무너지면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접이 어려워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빙벽 앞을 나아가는 새가 눈곱만한 하루살이 크기보로 보일 뿐이었다. 멀리서도 확실히 보였던 것은 푸른 빙벽 아래에서 끓고 있는 듯이 뿜어지는 황토색 용방수였다. 현지 가이드도 “여름에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북극의 변화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이었다.

보도가 나간 뒤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덕슨 피오르였다. 빙하가 녹으며 슬러는 퇴적물이 쌓여 갯벌로 변한



곳이다. 진흙 갯벌과 푸릇한 언덕의 풍경. 설명 없이는 북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진흙에 남아 있는 북극곰 발바닥 자국이 이곳이 북극임을 말해준다. 이 사진은 북극곰의 흔적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즐거워서 남겨둔 것인데 다시 꺼내보니 삶이 팍팍해졌을 북극곰의 처지가 안타깝다.

거대한 변화앞에서

북극의 얼음은 햇빛을 반사해 지구 온도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얼음이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더 빨리 더 많은 얼음이 사라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북극의 변화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북극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전 세계 이상기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라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체가 우리에게 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알리기 위해 북극까지 다녀왔다. 조디악보트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북극의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했다. 극지에서 사망감을 갖고 활동하는 각국의 연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14박 16일 동안 쌓은 메모리가 15테라다.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너무 빠른 계절의 변화 등은 이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시사기획 창 -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가 시청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제 발언 취재, 보도한 MBC 영상기자, 취재기자에 협박편지도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일부 행사 공식발언 외에 대통령 현장을 사용 말 것 요구에 기자단 항의하기도

이번 '대통령 비속어논란' 뒤, 이를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MBC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비난과 공권력을 동원한 수사와 각 종 조사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다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인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기자들의 위축을 가져 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22일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기자단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나?"며 비보도를 요청했다. 기자단이 이를 거절하자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해당 영상을 최초 보도한 MBC에 취재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MBC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과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른바 허위방송에 대해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언론사 임원을 임의로 소환하려는 시도 역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의 무리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0월 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기자단에 '공식 발언 외의 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새로 임명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의 지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방침 철회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영상기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인인데 '영상을 내보내지 말라', '녹취를 하지 말라'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

며 보도지침이 통하던 옛날 언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론을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어이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더 놀라운 것은 녹취 금지를 요구한 사람이 바로 방송사(YTN) 기자 출신 비서관이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주위에 언론인 출신이 여럿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념이나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집권여당과 그런가 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MBC 박성제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 고발하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MBC 민영화를 언급하는 한편 MBC를 항의방문하기도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특히 김석기 국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MBC의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경우라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 실수하셨나' 그러면 'כן' 일인데' (라고) 격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외신에다 갖다 퍼뜨리면서 전혀 열도당도않은 미국,

의회, 바이든(과 같이) 없는 말을 자막에서 만들어서 붙여서 퍼뜨린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속어 영상을 촬영한 MBC 기자는 대통령실과 보수 유튜브 등으로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영상을 왜곡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유세 장면을 왜곡했던 기자' 등의 공격을 당했다. 이 기자는 국회는 물론 익명의 인물로부터 여러 건의 검찰 고발을 당하고 자신을 욕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심리상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자신과 취재기자를 매도한 세력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조 최성혁 MBC본부장은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좌표 찍기와 검찰 고발, 국정감사를 통한 외국 선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일련의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는 공영방송 MBC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향후 예상되는 탄압에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27일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열린현업언론단체 긴급공동기자회견.

최 본부장은 이어 또 "MBC가 더 이상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더 이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

해 기자와 방송, 언론사가 움직여지고,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인과 방송, 언론사에 대해, 공권력까지 동원한 수사와 조사로 압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오랜 시간 성취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흔들고 훼손시키려는 퇴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으로는 언론인

과 방송사, 언론사들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국민과 언론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했던 우리의 역사를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정부와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서울, 광주서 2022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 행사 열려

‘기로에 선 세계상’ 필립 콕스 등 수상자들, 한국 언론인, 시민들과 만나

수단,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취재이야기 나눠

영상기자, 언론학자 참여한 한국 언론의 국제 보도 발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와 5.18기념재단(이사장)은 '2022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언론인, 시민들과 나누는 특별 행사를 열었다.

올해 수상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MBC 플렉스마우스홀과 28일 전남대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참석해 수상 소감과 소회 등을 밝혔다.

비경쟁부문인 '오월광주상'의 수상자 마지디 베누라는 공동 수상자이자 24년 동안 현장을 함께 누벼온 쉬틴 아부 이블레 기자가 이날 함께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지난 5월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 있는 제닌 난민촌을 취재하면서 기자임을 표시하는 'PRESS(언론)'이라고 적힌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쉬틴 기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다. 베누라 기자는 이어 "24년 동안 함께 일해 온 쉬틴 기자가 목숨을 다할 때 나는 그것을 찍어 언론에 알렸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 취재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와타나베 타쿠야 일본 TBS 기사는 코로나19에 걸려 불참했지만, 영상으로 소감을 보내왔다. 와타나베 기자는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 세력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을 취재했다. 와타나베 기자는 "카불에는 모든 병원들이 굶주린 아이들만 넘쳐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빈곤이 만연해 있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의 취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지원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상기자로서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 모든 각도에서 이야기를 바라봄으로써 선동이나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 기자들은 중국, 러시아, 또는 서구의 선입견으로부터 독립적인 만큼 힌츠페터가 가졌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찾고 그것을 포착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집 부문 수상자인 윤재완 독립PD는 우리나라의 여권법에 대해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간 지 2주 뒤에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니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윤 PD는 "언제 들어갈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가게 되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입국하지마자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PD는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해외 소식을 전하는 독립PD로 일하고 있다. 윤 PD가 68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머물며 취재한 영상은 KBS가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가운데 '1부 - 포화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제작해 6월 2일 방영했다.

상영회 위에는 수상자와 국내 언론인,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영상으로 변화시키는 세계 - 한국언론과 시민의 역할' 토론회가 이어졌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가 △지정학적 편향성 △선진국 편향성 △문화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채 교수와의 중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일간지 5곳이 보도한 국제뉴스 총 7만5049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 대한 보도가 2만9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만1656건, 일본 8천857건 순이었다. 이들 뒤를 영국, 인도, 아프가니

스탄이 순서대로 차지했다.

채 교수는 이 외에도 정과정, 정보의존성, 근대적 일국주의 등도 한국 국제보도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국제뉴스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취재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이승용 MBC 선임기자실장은 "깊이 있는 국제뉴스가 어려운 데는 언론사 내부의 경제적 이유와 국제부의 위상, 특파원 제도의 문제, 국제기자의 전문성 등 한국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힌츠페터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분쟁전문 PD는 국제 보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PD는 우선 국제뉴스 취재가 신뢰 관계와 인맥 없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임시 특파원이나 순회 특파원 제도를 만들어 세계국제 뉴스 현장에 수시로 현장 취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제 뉴스 취재는 '돈과 시간 싸움'인 만큼 현장 취재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PD는 전쟁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정해 취재 허가를 내주지 않는 한국 여권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쟁 국가에 대한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현지 취재를 다녀온 MBC 뉴스영상2부 한기택 차장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맹목이 끊어져 왔던 국제 분쟁 보도 혹은 전쟁 보도의 교육과 경험의 계승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위험 지역 취재에 대한 교육과 현지인 중심의 협력 고용 등 언론인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언론현업단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위한 법률 개정 청원 돌입

IFJ 등 국제언론인 단체, 외신들 한국언론상황 우려 표명

들루아르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심사위원장 "언론 자유는 다른 자유를 보장" 강조

(1면에 이어서)

특히 국제기자연맹(IFJ)은 4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 "MBC와 한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토니 벨랑제 IFJ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인 IFJ에는 전 세계 140여개국 180여 매체의 언론인 60만명이 가입한 단체다.

2022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심사위원장은 10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시상식에 보낸 영상메세지를 통해 "언론자유는 다른 자유를

보장한다. 독립적인 보도 없이 인권과 법치를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확립하고 유지해온 대한민국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민주적 보장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국가였고, 동아시아의 언론자유 대표국이 되기 위해 한국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해왔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퇴행들이 제대로 견제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폭소리를 모아, 언론현업단체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법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양만희), 전국언론노인운동조합(위원장 윤창현),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회장 최지원)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내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한 마디면 끝났을 문제를 논덩이처럼 키운 장본인들은 어이없게도 정부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퇴행들이 제대로 견제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왜 시급한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업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시작했다."며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즉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0일부터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시작된 상태다. 또,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10월 13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4일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HYUNDAI

[2022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집상 수상자]

“한국 언론인으로서 힌츠페터 정신 인정받아 감사
여권법 개정 통해, 전쟁터, 재난국가에서 한국 언론인 취재 권한 보장되길”

윤재완 독립PD

2021년에 콜롬비아의 다리엔 갭을 통해 파나마, 멕시코, 미국으로 피난을 가던 아이티 난민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보다 먼저 브루노 페데리코(Bruno Federico) 기자가 그곳에 있었고 그의 다큐멘터리가 2021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집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갔어야 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위험한 지역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가장 큰 피해자와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들과 먹고 자고 그들이 저를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로 대하기를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솔직하고 진정한 모습을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Kharkiv)에서의 저의 시간은 실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하르키우에서 죽으면 행복한 언론인

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힌츠페터의 저널리즘 정신을 계승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 K-POP의 나라이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필리핀(민다나오),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여권법에 따라 한국인 저널리스트도 취재를 금하고 있습니다. 힌츠페터는 훌륭한 기자가 있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하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수상이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저널리스트들에게는 국내의 여권법 때문에, 취재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전 세계 언론인들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한국 언론인들도 여러분과 동등한 취재 권한을 받고 전쟁터나 재난 국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영상기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로 부터 특집부문 상을 받는 윤재완 독립PD.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좋은 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2019년과 2022년 1월에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을 다룬 짧은 에피소드 두 편을 제작한 저는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달려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남과 북의 현실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생사를 눈앞에서 담을 수 있었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 ‘전쟁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취재를 도와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인과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기자들과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촬영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지 언론인과 여러 나라의 경험 많은 언론인을 통해 분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유일한 한국인 기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한국 언론인들이 함께 우리 언론인의 권리, 즉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요구할 때입니다.

[2022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 수상자]

“첫 취재를 함께 했던 언론인 동료이자 친구인故 쉬린 아부 아클레기자의 죽음 영상으로 담아낸 고통...팔레스타인의 진실 계속 취재할 것”

마지디 베누라

수상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건 알 자지라의 도하 본부와 예루살렘 지부를 통해서였고, 한국인 언론인 동료도 수상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2022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 심사위원회는 제 회사동료에게故 쉬린 아부 아클레의 죽음을 기록한 영상기자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는 저와 알 자지라의 사무실에 오월광주상 수상 소식을 전했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을 통틀어,故 쉬린 아부 아클레 기자의 죽음을 영상으로 담은

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故 쉬린 아부 아클레 기자는 지난 24년간 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그의 죽음을 목격하는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자발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끔찍한 장면을 촬영했지만, 촬영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점령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섬뜩한 범죄를 기록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오월광주상 수상이 아주 뜻깊습니다. 오월광주상 수상은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기자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취재하라는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오월광주상 수상 소식은 저와 제 동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영감이 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실생활에

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추악한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그 보도가 전 세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상식 특별행사 이모저모]

수상자들, 김진표 국회의장 격려간담회,
5.18민주묘역 헌화행사

필립 콕스 등 “한국기자들 국제분쟁 보도현장에서 훌륭한 저널리즘 보여주길 바래”
마지디 베누라 영상기자, 팔레스타인 평화를 소망하는 시민들과 만남행사도 참여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과 관련해 다양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수상자초청 격려간담회

시상식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의장집무실로 초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수상자 여러분은 수단,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투쟁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보도함으로써 전 세계에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웠다.”며 “1980년 5월, 진실이 묻힐 뻔한 광주의 참사를 전 세계에 알렸던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와 여러분의 투철한 기자정신 덕분에 세계는 더 좋은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콕스 기자는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힌츠페터 기자가 했던 일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쟁의 현장에서 더 많은 한국 기자들이 훌륭한 저널리즘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PD는 한국의 여권법으로 한국 언론인들의 분쟁지역 취재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보다 더 많은 한국 저널리스트들이 해외 분쟁지역에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위해 의장님과 국회의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힌츠페터 기자가 5·18 당시 취재한 필름을 숨겨 운반했던 과자 상자(시상식 기념품)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시상식 이

틀날인 28일 수상자들을 초청했다. 정 의장은 5.18 정신을 발전시키고, 광주시가 국제적인 인권평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과 수상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방문한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역과 망월동 옛 묘역에 조성된 고 힌츠페터 기자의 추모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마지디베누라초청 간담회

29일에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고양YMCA,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월광주상’ 수상자인 마지디 베누라 기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올해 들어 120명을 넘었고, 유엔의 지난 8월 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오늘에 대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을 수상한 마지디 베누라 기자에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베누라 기자는 지난 5월11일 팔레스타인의 난민촌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료 언론인인 고 쉬린 아부 아클레 기자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장면을 보도한 상황을 전했다. 베누라 기자는 또 팔레스타인 시민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대한민국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2022 시니어 영상기자 연수 참가기]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연수 통해 은퇴 이후 삶 계획할 수 있게 돼”

KBS 조현관

준비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진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은퇴 이후에 해 보자’.

이번 '2022 시니어 영상기자 연수'를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이다. '은퇴 이후 경제적 활동과 여가 활동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은 모두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전의 삶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않은 생활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 간접 경험을 이번 연수를 통해 한 번 더 했다.

인간 수명이 의학의 발전과 개선된 삶의 환경으로 길어졌다. 길어진 삶의 주기만큼 경제적 부분도 더 중요해졌다. 직장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재무설계도 해봐야 한다. 이번 연수의 재무설계사 교육을 통해 소액투자라도 지금부터 해 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의 건강 돌봄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가 활동 즉 취미를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시간을 들여 하나씩 배워야겠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는 주제는 각자의 몫이다. 나는 나와 가족이다. 특히 아내와는 은퇴 이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상적 이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으로 하루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낼 것을 이번 연



수에 온 강사는 권장했다.

중년의 정신건강이란 주제의 강 의에서는 중년 부부의 실태를 보여주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부간의 소통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구나' 등으로 애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살아온 삶의 길이와 무게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질 것 같지만 그 반대로 되는 것 같다.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 가족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 모습만큼은 나에게 없기를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짐해 본다. 그러려면 자기 수양과 더 여유로운 태도, 독서 등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많

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번 연수는 대략 은퇴가 8년 이내로 남은 영상기자들이 참가했는데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힘을 보태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연수였다. 현장에서 영상기자로 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특화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퇴직한 영상기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고,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기자로써 대부분 언론사 생활

을 한 참가자들이 사회,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영상 취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여 영상은 이제 마 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연수에 온 강사들은 영상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어 새로운 삶을 찾기 말고 자기 안에 새로운 재능과 욕구를 발견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 볼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가벼운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관계 유지가 어렵고,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 도서관 등을 활용해 작은 독서 모임이나 소모임을 찾아 활동해보자.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 지자체, 학교와 공공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배움터가 아주 많다.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면 된다.

이번 3일간의 시니어영상기자 연수 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한 유익한 연수였다.

신입회원인사

“영상 취재의 시작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듣는 것...”



MBC 위동원

“영상기자로써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요?”

입사 면접에서 나는 순발력, 통찰력, 그리고 팀워크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다. 일을 해보지 않았기에 어디까지나 나의 합리적인 추측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대답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나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카메라와 함께 세상을 접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었다.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이 모두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한다. 아직 1년도 채 채우지 못한 새내기이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영상기자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컷은 무슨 생각으로 찍은 거니?”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정말 생각 없이 찍었기 때문이다.

이날 나는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에 비장한 마음을 갖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에 배운 대로 네 쪽지를 돌려 필요한 것을 담았다. 아니, 담았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돌아와서 원본을 돌려받는 건 ‘아차’ 싶었다. 구호를 외치는 장면, 소위 말하는 ‘팔뚝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 네 쪽지를 열심히 돌려 풀 샷, 미디어 샷, 그리고 클로즈업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기계적으로 컷을 담은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담아야 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현장과 분리되어 이론에만 집착한 결과였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기자로써 어떠한 컷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해했다면 그런 아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들어봐. 그럼 무엇을 써야 하는지 보일 거야.” 지난여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수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여집없이 나는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나를 맞이한 건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반지하와 물에 젖어 썩어들어가는 가구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었다. 방송사 카메라를 본 수재민이 하나 둘 씩 다가와 힘없는 손으로 기자의 옷가지를 붙잡으며 울먹었다. “기자가, 이쪽으로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자가 된 것이 아닌가.

나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 문과 창문을 부수고 필사적으로 탈출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들으며 휘어진 창문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무언가로 강하게 내리친 듯 찌그러진 현관문이 눈에 클로즈업처럼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날 나는 많은 고민이 필요 없었다.

보도가 나간 후 데스크에서 나를 보시곤 말씀하셨다. “그럼 정말 많이 늘었네, 고생 많았다.” 현장에 나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카메라를 내려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영상 취재의 시작은 카메라를 켜는 것이 아니다. 취재원과 교감을 이루며 그들이 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좋은 컷이 나온다. 이러한 교감이 없이 그저 눈 앞에 펼쳐진 것을 찍기만 한다면 우리는 한낱 카메라맨에 불과하다.

신입회원인사

뉴스란 결국 사람들 이야기...눈물 너머 ‘이야기’ 담는 기자될 것

KBS 영상기자 이정현

저는 취재를 다녀온 후 항상 다이어리에 취재 일정을 써왔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신입 영상기자로써 글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펼쳐보았던 것도 이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이어리를 보면서 KBS 영상기자 이정현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사람들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사발을 한 학부모들, 아동학대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한 부모, 수단 민병대에 징용됐다 탈출한 난민 다오우드 씨, 스톱컷 피해자, 집중호우로 자신의 가게를 잃은 자영업자들... 기억을 더듬어 뚜렷하게 생각나는 취재원들만 해도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해야 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카메라를 들어야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기본적인 컷 하나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동기를 중에서 ENG 카메라에 적응하는 데에 가장 느렸고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취재보다는 ENG 이 녀석을 어떻게 잘 다룰까에만 급급했습니다.

선배들의 멘토링과 하루하루의 취재 경험 이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 야근, 취재기자 동기 와 ‘오늘 뭔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라고 위험한 농담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고 저는 문자를 나누고 있던 동기와 신당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이 되지 않은 채 현



장에 갔고 폴리스 라인과 경찰들, 각 사에서 달려온 영상기자 등 그날의 현장은 다른 현장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의 브리핑 녹취를 따며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했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걸 찍은 것이 아닌 인과관계에 따라 핵심적인 정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 당일 취재한 저의 영상이 수없이 뉴스에 나오며 스톱컷 범죄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아뵐 하고 다시 출근한 날도 어김없이 신당역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의 현장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 다. 사건에 분노하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이 포스트잇에 눌러 쓴 글씨에는 여러 감성들의 눈물이 녹아있었습니다.

내가 취재한 사건이 뉴스에 나가 사회문제를 꼬집고 시민, 국회의원, 장관과 경찰총장을 현장으로 불러왔고 스톱컷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걸 보며 영상기자로써의 책임을 아주 조금은 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만 클로즈업으로 찍는 영상기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영상취재를 하였습니다.

뉴스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영상기자가 있고 저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107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뜻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 공모시상부(정회원제한)

▲뉴스특종단독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 시선' 부문 ▲인권 · 노동보도부문 ▲국제 · 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 · 스포츠보도부문

■ 출품대상: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임수)

■ 심사: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4시 ■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8시

■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 문의: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고수의 알바의 뒷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주의

단순업무-서류작성, 출력, 배송 등 / 월 250 이상

15만원 + 알파, 월수입 360 보장

단순 배송 및 운반 / 월 300 이상



물품대금 수령 및 입금 / 월 400 보장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자금 수거 등을 통해 받는 금액을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내 폰을 지킨다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어플
시리즌코난

설치하면 전화가로채기 원격제어 보이스피싱 예방